

AUTHOR 박경수

TITLE 칼뱅에게 배우는 설교

IN 교회와 신학

vol.67 (Winter, 2006): 52-59

## 칼뱅에게 배우는 설교

박경수 | 전임강사 · 역사신학

### 1. 들어가는 말

칼뱅(Jean Calvin, 1509-1564)은 한 권의 조직신학 책과 한 도시로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는 신화가 오랫동안 칼뱅연구를 지배해 왔다. 한 권의 책이란 『기독교강요』를 말하고, 한 도시는 제네바를 일컫는다. 『기독교강요』는 칼뱅의 가르침을 체계화한 책이며, 제네바는 칼뱅의 가르침이 현실화된 곳이라는 인식이 당연히 되어왔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다르다. 실제로 칼뱅은 자신을 현대적 의미에서의 조직신학자로 여기지 않았으며,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네바의 교황”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한 사람의 목회자요 설교자로 생각했다. 칼뱅이 『기독교강요』를 쓴 목적도 “신학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칼뱅이 『기독교강요』에서 의도한 것은 하나의 거대한 신학적 체계를 세우려는 것이었다기보다는 성서의 의미를 밝히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칼뱅 연구에서 그의 성서주석과 설교가 그의 『기독교강요』나 신학적인 저작들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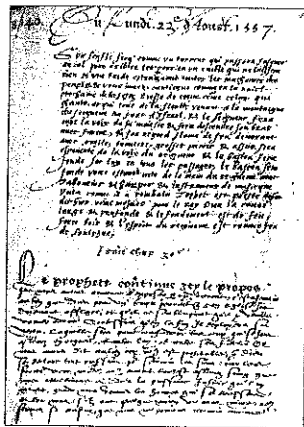
칼뱅은 분명 신학자였지만 그것은 목회자로서 설교하고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칼뱅이 먼저 목회자였고 그 다음에 신학자였음을 의미한다. 칼뱅의 유언은 목회자로서의 그의 자의식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데, 그는 자기 스스로를 “제네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 나, 장 칼뱅”이라고 불렀다.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의 설교자였고, 영혼들을 돌보고 치유하는 목회자였다. 최근에 새로운 칼뱅의 설교들이 발견되면서 설교자로서의 칼뱅에 대한 연구가 점점 활기를 띠고 있다. 스토페르(Richard Stauffer) 교수는 칼뱅의 설교에 대한 연구가 『기독교강요』에 치우친 칼뱅 연구를 보완하는 동시에 칼뱅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교정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이제 교회개혁자나 신학자로서의 칼뱅의 초상 이외에 설교자로서의 칼뱅의 모습에 관심을 기울일 때이다.

### 2. 설교자 칼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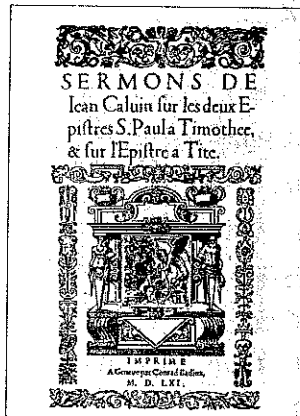
칼뱅은 제네바에서 사역하는 동안(1536-38, 1541-64), 그리고 스트라스부르 체류 기간 동안(1538-41) 쉬지 않고 설교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1549년 이전 칼뱅의 설교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1549년 이전의 설교 중 남아 있는 것은 두 편으로, 1545년 11월 4일 시편 115편을 본문으로 한 설교와 1545년 11월 11일 시편 124편을 본문으로 한 설교뿐이다. 1549년 8월 25일 제네바 교회는 대단히 의미 있는 결정을 하였는데, 데니스 라구에니어(Denis de Raguener)를 속기사로 임명한 것이다. 라구에니어는 1560년 죽을 때까지 칼뱅의 설교를 속기로 받아 적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칼뱅의 설교들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전적으로 그의 노력의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칼뱅의 설교는 대체로 1시간 이상 지속되었고 원

고나 메모 없이 이루어졌다. 그는 주일 오전에는 신약, 오후에는 신약이나 시편, 주 중에는 구약을 강해하였고, 특별한 절기에는 절기에 맞는 본문으로 설교하였다. 말년에 건강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지자, 그는 의자에 앉은 자신을 설교단으로 데려가 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면서까지 설교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였다.

칼뱅은 스트라스부르에서 제네바로 돌아온 다음 1541년부터 주일은 두 번, 그리고 평일에는 세 번(월, 수, 금) 설교하였다. 1549년부터는 주일에 두 번, 평일에는 격주로 매일 설교하였다. 라구에니어의 목록(1549-1560년의 설교목록)에는 2,042편의 칼뱅 설교가 열거되어 있다. 1560년 이후에는 추가로 263편의 설교가 기록되었다. 칼뱅의 설교 중 일부는 그의 생전에 출판되었지만, 많은 것들은 사후에 빛을 보았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칼뱅의 설교가 1,500편 정도이니 약 800편의 설교가 분실된 것이다. 1805-6년에 제네바 대학 도서관이 서가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칼뱅의 설교 필사본들을 팔아버린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다행히 일부 원고는 고물상에서 발견되어 되돌아왔지만 나머지는 사라져 버렸다. 칼뱅의 설교 중 874편의 설교가 『칼뱅전집』(Calvini Opera)에 수록되어 있고, 1961년 이후 칼뱅의 미간행 설교들이 『칼뱅전집보충』(Supplementa Calviniana)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되고 있다. 설교는 칼뱅의 전체 저술 중 대략 3분의 1에 달할 만큼 방대한 양이다. 칼뱅의 설교는 『기독교강요』에 대한 중요한 보완자료가 될 것이며, 칼뱅 신학의 원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시에서 30-28-33절에 대한 설교의 필사본으로, 바울의 디모테전후서와 디도서에 대한 칼뱅의 설교집



1557년 8월 23일 월요일 행해진 설교임을 알 수 있다. 표지로, 1561년(M.D.LXI) 출판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설교자는 누구인가?

설교자는 무엇보다 성서를 믿어야 한다. 칼뱅은 설교자는 성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 심지어 아성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조차도 예외 없이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신이 믿지도 못하고 감동을 받지 못한 말씀을 설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설교자 자신이 바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칼뱅은 설교에서 “당신” 혹은 “너희”라는 2인칭을 사용하지 않고 거의 언제나 “우리”라는 1인칭 복수형을 사용하여 설교한다. 칼뱅은 언제나 자신도 설교를 듣는 회중 속에 있다고 생각했으며, 자신의 설교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여겼다.

설교자는 배우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르치는 자는 먼저 배우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 설교를 잘 하려는 사람은 먼저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설교자의 메시지는 교회의 유일한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배운 것이어야 한다. 칼뱅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는 수고가 없다면, 강단에 오르다가 목이 부러지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Calvini Opera 26, 304)라고까지 말했으며, “먼저 내가 제자가 되어야 하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롬기 26:4절 설교에서, Calvini Opera 34, 424)라고 선언하였다.

설교자는 겸손과 용기를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고 구미에 맞지 않더라도 변치 않는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하며, 회중들이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말씀으로 책망할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 설교자는 우물쭈물 말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과감하게 혹은 꾸밈없이 제시해야 한다.

또한 설교자는 성서를 잘 알아야 하고, 가르치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말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 자신과 청중 모두가 괴롭게 된다.

이런 실제적인 자격들을 갖추는 것도 설교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칼뱅과 제네바의 목회자들이 매주 금요일 아침 7시에 성서연구(congrégations) 모임을 통해 설교하는 법을 훈련 받은 것처럼, 설교의 실재를 익히는 것도 설교자의 중요한

책임이다.

칼뱅은 설교자의 책무에 대해 말하면서, “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내가 베푸는 가르침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런 나의 설교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자라가지 못한다면 나는 신성모독행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것”(Calvini Opera 54, 287)이라고 말한다. 또한 회중들을 향해서도, “말씀을 읽거나 들으러 오는 사람들도 어리석게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거나 소일거리로 설교를 들으러 온다면 그 역시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것”(Calvini Opera 54, 287)이라고 가르쳤다.

#### 4. 설교란 무엇인가?

설교는 믿음의 어머니이다. 칼뱅도 루터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성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로마서 10:17)고 분명하게 선언한다. 칼뱅에게 있어서 말씀과 믿음의 관계는 태양과 햇빛이 나뉠 수 없고, 나무의 뿌리와 열매가 분리될 수 없듯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듣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따라서 말씀의 선포가 없이는 믿음도 없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외적인 은혜의 수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말씀 설교야말로 칼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표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는 바로 그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칼뱅은 설교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현실로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개인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설교에 의해서 “새로운 인간”과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설교는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증거하고 선언하는 것이다. 설교의 정당성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나 효과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의지이자 뜻이라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설교

하는 일은 가장 고귀한 소명이요, 가장 막중한 은사이다. 설교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입”이자 “하나님의 사자”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현존에 대한 일종의 성례이다. 칼뱅에게 설교는 교회가 제공하는 하나의 일이나 예배의 한 순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이다. 설교에서 성령은 설교자의 말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 이런 의미에서 설교자의 말은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에 비교될 수 있다. 따라서 칼뱅은 설교를 “들리는 표지”(audible sign)라 부르고 성례를 “보이는 말씀”(visible word)이라 불렀다.

설교는 인간의 일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 부지런히 준비하고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설교를 위해 주석도 하고, 예화도 모으고, 원고도 작성하고, 연습도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 설교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 설교가 우리 안에서 생동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조명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한다. 성령이 역사할 때는 형편없는 설교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칼뱅에 따르면 “설교는 믿는 자들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도구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지만, 성령의 은밀한 작용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효력을 발생시킨다”(칼뱅의 로마서 11장 14절 주석).

#### 5. 설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설교는 성서를 강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점에서 칼뱅은 츠빙글리의 전통을 좇고 있다. 츠빙글리는 취리히의 종교개혁자로 첫발을 디딘 1519년부터 성서의 책 중 한 권을 택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강해설교를 해 나갔다. 칼뱅도 츠빙글리와 같이 성서를 연속적으로 강해 설교하였다(lectio continua). 미리 짜놓은 성서구절(lectionary)을 설교하거나 설교자 개인의 기호에 따라 본문을 선정하는 데 대해 반대하였다. 칼뱅은 멜란히톤(Philip Melancthon)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멜란히톤의 설교 본문 선택방식에 대해서는 편파적이라고 비판하였다. 칼뱅이 1538년 제네바에서 추방되었다가 1541년 9월 제네바로 돌아온 후, 1538

년 중단되었던 설교에 뒤이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다는 것은 강해설교의 진수를 보여준다. 이런 강해설교의 방식을 따라 123편의 창세기 설교, 200편의 신명기 설교, 343편의 이사야 설교, 174편의 에스겔 설교, 159편의 욥기 설교, 189편의 사도행전 설교, 176편의 고린도전후서 설교가 이루어졌다.

설교는 성서에 대한 주석적 설명과 적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설교는 먼저 성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어야 한다. 칼뱅은 개인적으로 고대 교부 중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와 크리소스토모스에게 설교를 배웠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성서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였다. 칼뱅은 성서를 해석하면서 알레고리직 해석의 극단과 인문주의적 해석의 극단을 피하고 중도의 길을 가고자 하였다. 설교는 설명에 뒤이어 적용이 따라야 한다. 적용이 없는 설교는 강의에 그치고 만다. 설교라면 성서에서 구체적, 실제적 상황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칼뱅은 옷과 화장술과 같은 문제에서부터 전쟁과 같은 국제적인 문제까지 모두 설교에서 다루었다.

설교는 거룩한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설교는 분명 개인을 구원으로 이끌고 성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설교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도록 만드는 수단이기도 하다. 칼뱅은 설교를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칼뱅에게는 몇 가지 실제적인 설교의 전달 방식들이 있었다. 첫째로, 설교는 단순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해져야 한다. 칼뱅은 어렵고, 현학적이며, 이해할 수도 없는 말들을 나열하는 설교로는 설교 본연의 목적을 도무지 이룰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분명하게 설교하기를 원했다. 칼뱅은 자신이 아버지처럼 따르던 스트라스부르의 개혁자 마르틴 부처(Martin Bucer)에 대해 훌륭한 설교자이긴 하지만 설교가 너무 장황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단점이라고 평하기도 하였다. 둘째로, 설교는 기본적으로 가르침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묻고 답하는 형식도 설교에서 사용되었다. 셋째로, 설교는 생동적이어야 하므로,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극적이 표현이나 논쟁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칼뱅은 양을 위한 온화한 언어와 더불어 이리를 대적하는 과격한 용어를 함께 설교에 사용하였다. 넷째로, 설교는 진지하게 전해야 한다. 왜냐하면 설교는 유쾌한 농담을 즐기거나 무익한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청중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진리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 6. 나가는 말

오늘날처럼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때도 없을 것이다. 이제는 인터넷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서 듣고 싶은 내용의 설교를 취사선택해 무한정으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지만 홍수를 만나면 정작 먹는 물은 더 귀해지듯이, 말의 잔치 속에서 참된 설교를 듣는 것은 오히려 희귀한 것이 사실이다. 목회자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성도를 양육하고 다스려야 할 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의 사명이 가장 본질적인 책임이다. 설교자는 리처드 박스터의 유명한 표현처럼 “지금 하는 설교가 자신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설교해야 한다.

칼뱅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가 중 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칼뱅의 설교는 다른 어떤 신학 논문보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훨씬 더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참으로 칼뱅은 “사람들의 심중으로 파고 들어가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스도가 흘리시는 보혈을 느끼도록 만드는”(갈라디아서 3:1 주석) 탁월한 설교자였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칼뱅의 확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한 지칠 줄 모르는 그의 열정, 그 말씀을 통해 “새로운 인간”과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던 비전은 오늘을 사는 설교자들이 배워야 할 진정한 칼뱅의 유산일 것이다.